



제목	Iran Without Borders: Towards a Critique of the Postcolonial Nat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Verso
발행일	2016. 8. 9.
저자	Hamid Dabashi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784780685

내용 요약

이 책은 이란 사에서 국가의 개념, 19세기 유럽인들이 만들어내고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로 수출한 개념에 대해 논한 글이다. 저자는 이란에서 국가 개념의 불합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이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여행하면서 유럽, 인도, 중국까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 사례들이다. 문화적 공유의 현상은 이란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의 사례는 인종적으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발루치족, 아랍족, 아제르족 등의 문화, 종교적으로 수니와 시아 이슬람, 크리스티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문화, 즉 전혀 다른 문화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다원적이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이란을 만들어냈다. 저자는 이란의 성직자들과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를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호메이니는 1977~1979년의 혁명을 훔쳤는데, 그 이유는 이란 혁명은 이슬람 혁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란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그룹들을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동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전쟁과 내전으로 이미 퇴색해버렸다.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집단의 권력 장악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백인 앵글로색슨의 크리스티교 문화, 서구의 국민국가의 개념은 이슬람교도와 다른 소수자들에게 허울뿐이었고,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다. 저자는 더 큰 선을 위해 국민이라는 개념을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국경선도, 국가도, 국민도 초월하기 때문이다.